



보도자료

사무총장 박 주 현 변호사
대 변 인 유 정 화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이메일 : hanbyun@hanbyun.or.kr
홈페이지: www.hanbyun.or.kr

한변을 ‘극우’ 단체로 폄훼 방송한 KBS는 즉각 사과해야

KBS 19일 저녁 9시 뉴스에서 “극우 인사 4·3위원 추천 ‘논란’...“확정 아냐”라는 제목의 활자가 시종 화면을 채우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에 이승학 제주경찰4·3유가족회 사무총장과 문수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3유가족회 등이 극우적 성향의 중앙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고, 그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 내에 위 같은 제목의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7029&ref=A>)를 게재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는 한변이 마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 단체인 것으로 왜곡한 것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자유통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균형있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해온 변호사단체인 한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편파적인 방송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변은 위와 같은 KBS의 근거 없는 왜곡 방송 및 그 방송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로 인해 현재에도 위 기사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급속히 퍼지고 있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확대되고 소속 변호사들의 정신적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변은 오늘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KBS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KBS는 즉각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중지하고, 조속히 한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7. 2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